

국내 SUV ‘춘추전국’… 소형부터 대형까지 출격 준비

완성차업계, 하반기 신차 출시
현대차, 초소형급 SUV ‘베뉴’
르노삼성, 新 세그먼트 ‘XM3’
한국지엠 쉐보레 대형 ‘트레버스’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격한 성장에 맞춰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내수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죄다. 특히 기존에 없던 세그먼트 차량의 출시로 틈새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 하반기 완전히 새로운 상품성을 갖춘 엔트리 SUV 베뉴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베뉴는 현대차 SUV 라인업 중 코나와 투싼, 싼타페, 팰리세이드의 막내 자리에 위치하는 모델로 경차에 가까운 초소형 급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엔트리 SUV 베뉴의 출시를 통해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거나 Y, Z세대로 대표되는 밀레니얼 세대의 공략을 가속화 한다.

노사 갈등과 신차 부재로 판매가 곤



현대차 베뉴(VENUE) 렌더링 이미지.



르노삼성 XM3.



한국지엠 쉐보레 트레버스.

/각사

두박질치고 있는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은 새로운 세그먼트 차량의 출시를 통해 판매량 증가와 회사 경영 정상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르노삼성이 내년 상반기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XM3는 부산 공장의 위기 돌파의 키를 쥐고 있다. QM6와 QM3의 중간급 사이즈로 출시되는 XM3는 르노삼성이 르노그룹 본사로부터 약속받았던 ‘닛산 로고’의 수출 후속 물량으로 부산공장의 활성화를 이끌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XM3는 미래지향적 스타일의 크로스오버 SUV로 르노삼성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세그먼트다. 이 때문에 르노

삼성이 내년 1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XM3에 거는 기대도 크다.

다만 문제는 르노삼성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XM3의 배정도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 르노그룹은 임단협이 결렬되고 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면 XM3 수출 물량은 부산이 아닌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에 배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아메리칸 정통 SUV 라인업을 국내 시장에 촘촘하게 배치하고 다양한 소비자 층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은 단순히 내수 판매 확대보다 지속적

으로 신차를 도입하고 수출 물량을 늘려 내실을 다져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지엠은 올 하반기 트레버스와 콜로라도를 출시한다. 해당 모델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판매 성장을 기록하며 인기를 입증 받은 모델이다.

트레버스는 지난 1935년 서버번으로 시작된 쉐보레 SUV 헤리티지를 계승한 모델로, 동급에서 가장 긴 전장과 휠베이스를 갖춘 것이 특징이며, 콜로라도는 출시 이후 45만대 이상 판매된 미국 중형 픽업트럭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갖춘 모델에 속한다.

또한 한국지엠은 부평 공장 생산량 증

가와 수의 개선을 위해 준중형 SUV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모델은 소형 SUV 트랙스와 중형 SUV 이쿼녹스 사이 제품이다. 이를 통해 한국지엠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델과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델을 통합해 트랙스-준중형 SUV-이쿼녹스-블레이저-트레버스-타호-서버번에 이르는 글로벌 SUV 라인업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카잼 시장은 서울모터쇼에서 “내년 중 더 흥미로운 SUV를 선보이고 라인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연말 중 관련된 사항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우조선, 그리스서 LNG선 1척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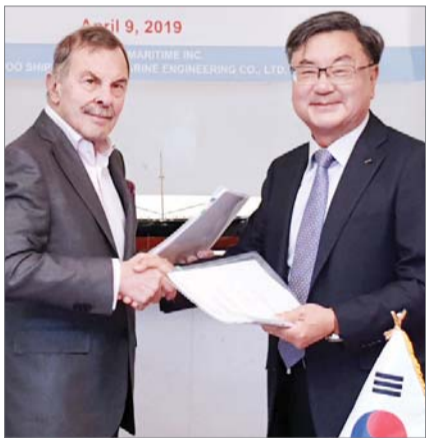
안젤리쿠시스 그룹 마란가스사
2022년 1분기 까지 인도 예정

대우조선해양이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1척을 수주하며 본격적인 수주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대우조선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사로부터 17만4000㎥ 규모의 LNG운반선 1척을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2년 1분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수주한 안젤리쿠시스 그룹과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연이 다시 한번 더 조명을 받고 있다.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이번 계약포함 대우조선해양에 무려 105척의 선박을 발주한 최대 고객이며



지난 9일(현지시간) 그리스에서 대우조선해양 이성근 사장(오른쪽)과 안젤리쿠시스 그룹 존 안젤리쿠시스 회장이 LNG운반선 건조 계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올해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LNG운반선 4척은 모두 안젤리쿠시스 그룹이 발주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중구 필동 골목상권 제휴 ‘U+로드’ 운영

LG유플러스, 21일까지 할인 혜택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영화예매권

LG유플러스는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중구 필동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에 방문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U+로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U+로드는 LG유플러스와 골목상권과 제휴해 멤버십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이다. 2018년 10월 서울 종로 서촌 이후 서울 중구 필동에서 두 번째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필동 골목에 위치한 약 18개 상점에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 쿠폰을 소지한 고객은 카페 ‘블리스가든’ ‘FEEL CAFE’ ‘에빈의커피이

야기’ ‘파니나다’를 시작으로 한식 식당인 ‘필동삼계탕’ ‘멸치국수’ ‘해물담판마리’ ‘동대담판마리’ 중식 식당인 ‘짬뽕야’, 일식 식당인 ‘연미식당’ 등 한중일 음식을 만나볼 수 있다.

U+로드는 서울시와 협업해 간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도입했다. 제휴 상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중무로에 위치한 대한극장 영화예매권을 받을 수 있다.

U+로드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은 U+멤버십앱에서 받을 수 있다. 할인율과 혜택은 제휴 상점 및 제품별로 상이하다. 같은 날 동일한 매장에서 중복 사용은 불가하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주) C&C, 협력사와 사회적 가치창출 모색

‘BP사 CEO 세미나’ 개최

SK(주) C&C는 1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캠퍼스에서 ‘2019년 상반기 비즈니스 파트너(BP)사 CEO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BP사 CEO 세미나는 BP사 대표들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높이고, 양사가 윈윈의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시행되고 있다.

SK(주) C&C는 이날 100여 명의 BP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기반의 지속가능 성장 모델 개발과 비즈니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소개하며 BP사와의 다양한 협력



SK(주) C&C 유행제 SV추진실장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SK(주) C&C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DBL 경영’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사회적 가치 창출 인프

로 활용하는 ‘공유 인프라’ ▲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사업 적용 방안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디지털라이제이션 세미나에서는 고객의 실제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 사업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됐다.

순천향대학교 IoT보안연구센터 김학용 교수의 특강과 함께 제시된 6대 디지털화 기술인 사물인터넷·위치기반서비스(LB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클라우드·빅데이터·비즈니스인터넷(IoB)을 기반으로 실제 사업화 가능한 사업 모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구서윤 기자

샤오미, 20만원대 스마트폰 국내 출시

‘레드미노트7’ 온라인서 판매

샤오미가 20만원대 스마트폰 ‘레드미노트7’을 국내에서 출시했다. 온라인 판매를 집중적으로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이마트와 손잡고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전국에 서비스센터를 개설하는 등 한국 소비자를 적극 공략한다. 이번 신제품 출시는 작년 7월 ‘레드미노트5’를 국내에서 출시한 이후 9개월 만이다.

레드미노트7은 6.3인치 풀H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닷 드롭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해 눈의 피로도를 낮췄다. 베젤(테두리)은 전작보다 10% 줄인 1.95mm다. 기기의 전후면부에는 코닝 고릴라 글래스 5를 장착해 내구성



레드미노트7 넵톤 블루 모델. /구서윤 기자

을 강화했다.

4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USB-C 타입을 지원하고, 퀵ชาร์จ4를 통해 충전시간을 줄였다. 3.5mm의 이어폰 단자와 함께 헤드폰 단자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후면에는 4800만·5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와 지문인식 버튼을 탑재했고 전면에는 13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다. 4GB의 램과 64GB 저장공간을 제공하며, 색상은 스페이스 블랙, 넵톤 블루의 2가지 색으로 출시되며 향후 네블라 레드도 추가될 예정이다. 가격은 24만 9000원이다. 10일부터 롯데하이마트를 통해 사전예약이 진행되며 정식 출시일은 15일이다.

샤오미는 레드미노트7 출시와 함께 전국에 총 37개의 서비스센터도 개설한다. 이에 따라 레드미노트7부터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전 스마트폰이나 작구 제품은 수리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아이나비 10개 지점을 통해 수리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한편, 샤오미는 자사의 첫 5G 스마트폰 미믹35G를 오는 5월 서울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국내 판매 시기는 미정이다.

/구서윤 기자